

월간양계의  
지난 15년과  
앞으로의 15년

11월로 월간양계가 창간 1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창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몇사람에 의해서 발행되어 온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양계인이 참여하였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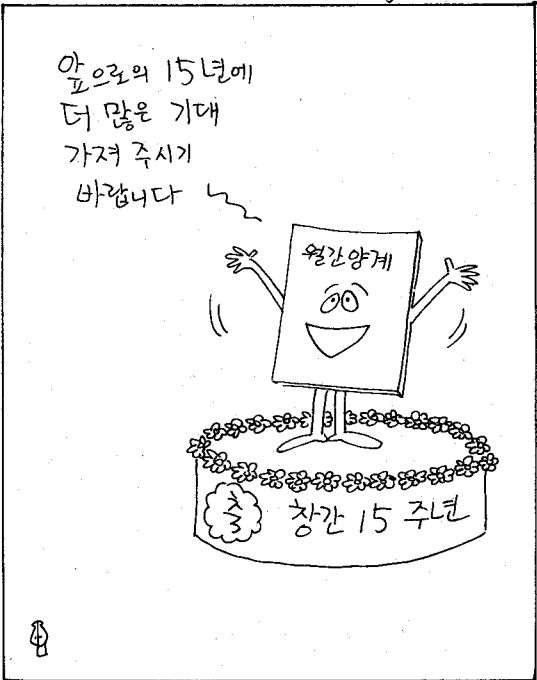
때로는 양계인의 대변자로서 양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편집진에서 양계인의 가슴속에 숨겨진 문제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지 양계인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하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어 회로애락을 잘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가슴속에 숨겨진 깊은 뜻을 기자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행주치마를 입에 물고 입만 뻥긋하는 것을 보고 기쁨의 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편집담당 직원들은 아직도 초능력이나 양계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독심술(讀心術)도 없으니 앞으로는 적극적인 참여로 양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15년 후인 2,000년대에는 우리의 국민소득이 현재의 서독 등 EC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 고 하니 계란이나 닭고기 소비도 급증할 것이고, 따라서 월간양계의 앞으로 15년은 지난 15년의 몇배나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되어갈 것입니다.

알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사회는 벌써 고도의 정보를 갖는다는 것이 힘이며, 이를 실천에 옮길 때 더 한층 큰 힘을 발휘하는 정보지배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월간양계는 새로운 제 3의 정보혁명시대에 정보를 만들고 보관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에게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축적된 정보를 재정비 분류하고 활자매체 외에 전파매체도 병행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정보 외에도 유통, 소비, 경영, 조직관리 정보와, 양계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일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양계인의 번영을 위한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믿어주고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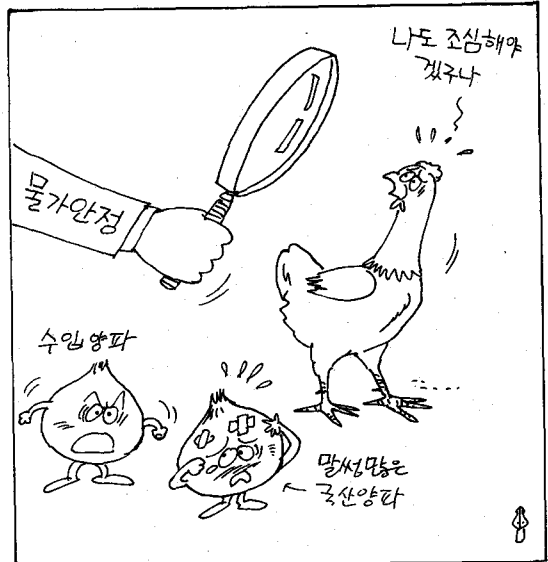
## 양파 관세를 변경

86년부터 닭고기의 수입이 자유화 된다는 것은 이미 정부도 발표하였고, 본란을 통해서도 보도된바 있다.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자연 닭고기나 계란가격도 물가당국의 지대한 관심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86년부터는 개방화 정책에 의해서 수입이 개방되지만 그 이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추석전 일시적으로 닭고기 계란값이 상승되었을 때 확인된바 있었다. 가격이 오르면 바로 수입이 검토되기 때문에 불황을 넘기는 슬기도 배워야 한다.

지난 추석전 물가상승을 주도하여 수입이 결정된 농산물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양파를 들수 있다. 브로일러와 같이 폭등 폭락을 계속하고 있어 밭에서 버리는 아픔과 품귀



현상이 계속돼 오고 있다.

78년의 고추과동, 마늘과동 등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남는다.

양파의 경우도 값이 오르면 수입한다는 정책을 그간 채택하여 왔지만 금년에도 자급을 하지 못하고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해서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수입농축산물을 민간이나 정부차원에서 수입할 때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데 이번 양파의 경우에는 84년 9월 20일부터 85년 6월 30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물가평형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재무부령이 정한 기준가격(양파 311원/kg)에서 파세가격을 공제한 가격을 세액으로 하므로 기준가격으로 시장출하를 하게 되어 기준가격에 따라 시장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제15조** (물가평형관세) ①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물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그 물품의 파세가격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78.12.5)

②특정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파세가격의 구분에 따라 기본관세를 이하의 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본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이하의 금액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78.12.5)

③특정물품의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에 상당한 율을 가감한 율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81.12.)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물품·세율 또는 징수할 금액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12.)

이 제도가 양파의 경우 성공여부와 문제점 등을 우리가 검토하고 양계업계도 앞으로의 양계산물 수입에 대비하여 관세제도, 검역제도, 국내유통구조, 소비자의 기호 등에 대하여 미리 미리 연구조사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다.

◎ 대통령령제11, 529호

관세법 제15조등의 규정에 의한 양파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

제1조 (물가평형관세)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변경할 물품과 그 적용세액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관세율 표번호	품 명	세 액
0701	양파(신선 또는냉장한 것에 한한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파세가격을 공제한 금액

제2조 (할당관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 수량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한다.

관세율 표번호	품 명	세율	한계수량
1002	호밀(종자용에 한한다)	무세	3,100톤

제3조 (용도의 제한) 이 영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물품은 내수용의 것에 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9월20일부터 1985년 6월30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개정된 양파의 관세율은 50%이었다.

## 육계가격 하락

84년에 와서 브로일러 산업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여파로 부화업체까지 혼역을 겪고 있다.

작년부터 서울일원에 상인주도의 도계유통이 실시되면서 브로일러 유통에 병목현상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 도계장이라는 병목을 수집상이 움켜쥐고 도계장을 수집상들의 정보교환 장소로 이용하면서 가격결정의 대권을 이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브로일러의 수요와 공급이 알맞으면 상인들이 장사하기에 편리한 가격으로 하향 조정된다. 공급이 좀 부족하여야 가격이 오르고 너무 오른다고 판단되면 장사를 쉬어버린다.



또 이들은 지방 곳곳에 정보원이 있어 브로 일러 수급에 대한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 상품(닭)을 가진 자보다 정보를 가진자가 이긴다는 말이 지난 9월 닭값을 보면 이해가 간다. 9월 13일까지 kg당 1,300원 하던 것이 14일 하루아침에 1,050원으로 20%나 폭락했고, 이것도 4일 유지되다 다시 800원으로 떨어져 5일만에 1,300원에서 800원으로 38.5%가 폭락하는 웃을 수도 울수도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시장기능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기 보다는 몇몇 유통상인에 의하여 대폭 상승과 대폭하락을 계속한다면 양계산업은 더욱 황폐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8월까지 육계사로 생산실적을 보면 전년에 비하여 78.7%에 머무르고 있어 금년에 오히려 닭고기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신문, TV 등에서는 보신탕 수요가 모두 닭고기로 바뀌어 양계업체가 큰 호황이나 만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삼계탕 등이 어느 시기에 좀더 판매된 것 뿐이다.

건전한 브로일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 병목현상을 없애고 생산과 유통이 통합되어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 추곡, 값올려 950만섬 수매

정부는 금년 추곡 수매가격을 정곡 2등급 기준 80kg들이 가마당 작년보다 3%, 1,680원 올린 57,650원으로 정하고, 수매량은 정부수매 850만섬, 농협수매 100만섬 도합 950만섬으로 책정했다.

금년도 수매량 950만섬은 작년보다 137만섬이 더 늘어난 것인데, 정부수매와 별도로 농협이 일반미 100만섬을 사들이는 것은 홍수출하기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이다.

정부는 올해 벼농사 시기가 앞당겨진 점을 감안 수매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오는 10월 2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량 현금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매기간동안 농어촌에 풀려나가는 자금은 작년보다 1,900억원이 늘어난 모두 1조 200억원에 이르게 된다.

### 〈84년산 벼 수매가격〉

(단위 : 원)

단 량	1 등	2 등	등 외	잠 정 등 외
54kg	29,370	28,050	24,960	22,380